

주요 주간 동향 리스트

2021년 5월 1호

◆ 주요 동향

1. 중국 해상교통안전법 개정, 선원 권익보호 처음으로 법에 포함
中国修订海上交通安全法 首次将船员权益保障写入法律
2. 하이난자유무역항, 첫 번째 국제선박 선적 전환 완료
海南自贸港迎来首艘由境外转籍国际船舶
3. TradeLens 중국 상륙, GSBN와의 경쟁 시작
TradeLens落地中国 直面与GSBN的较量!
4. 파나마직 선박에 대한 톤세 우대세율 5월 16일 만료
5月17日起, 巴拿马籍船舶将不再适用吨税优惠税率
5. 교통운수부, 「항만 및 선박 육상전력 관리방법」 개정
交通运输部修订《港口和船舶岸电管理办法》, 你有哪些意见?
6. 리샤오핑 교통운수부 부장, 교통운송 분야 '14.5' 계획에 '고품질' 반영 강조
李小鹏主持召开部务会, 强调: 高质量编制实施交通运输“十四五”各项规划
7. 지분 매수, 매각을 통한 COSCO Shipping Ports의 동북아 허브항 구축 계획
一买一卖, 中远海运港口打造东北亚枢纽港
8. 칭다오항, 예인선 육상전력 시스템에 스마트칩 장착
山东港口青岛港拖轮岸电装上“智能芯”

* 본 주요 동향은 중국의 주요 언론 기사를 번역한 내용임

◆ 기타 동향

9. COSCO Shipping, 5개 프리미엄 노선 깜짝 개통
中远海运5条精品航线闪耀来袭
<https://mp.weixin.qq.com/s/gLbnzibdwD2-xv2p9qBOSw>
10. 경영허가 없는 외국 선박검사기구 조사를 받아
外国验船机构未经许可开展业务被查处
<http://www.zgsyb.com/news.html?aid=590498>
11. 원저우시, 수출입 공컨 수급을 위해 2,200만 위안의 보조금 마련
温州发放2200万元调拨外贸空箱专项补助
<http://www.zgsyb.com/news.html?aid=590485>
12. 2021년 1~4월 Ningbo-Zhoushan 항 컨테이너 물동량 1천만 TEU 이상, 전체 노선수 269개에 이르러
前4个月宁波舟山港集装箱量超千万箱 总航线数达269条
<http://www.chinaports.com/portlspnews/7878>
13. 징둥물류, 2021년 1분기 매출 64.1% 증가, 5월 28일 홍콩증시 상장 예상
京东物流2021年Q1营收增长64.1%, 预计5月28日在港上市
<https://www.headscm.com/Fingertip/detail/id/20607.html>
14. 광둥, 전자상거래 특송 2차 포장 더 이상 시행하지 않기로
广东：推动全面实现电商快件不再二次包装
<https://www.headscm.com/Fingertip/detail/id/20588.html>

작성자 : 장원형 중국연구센터 연구원

육천연 중국연구센터 연구원

김은우 중국연구센터 부연구위원

감수자 : 한광석 중국연구센터 센터장

(kmishanghai@naver.com/+86-21-6090-0395)

중국 해상교통안전법 개정, 선원 권익보호 처음으로 법에 포함

■ 제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(전인대) 상무위원회는 4월 29일 해상교통안전법 수정안을 의결했음

- 개정된 해상교통안전법은 해사근로자 허가증명서, 선원 해외 돌발사태 경보 및 응급처치 등을 신설해 선원의 권익 보장을 국내법에 처음으로 포함시켰음
-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공정위 민법사무실 두타오(杜涛) 부주임은 이번 법 개정으로 향후 80만 명이 넘는 원양 선원이 법적 보장을 받는 근무 여건을 제공받을 것이라고 말함

■ 개정된 해상교통안전법은 총 10장 12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, 8개 법제도가 이번에 신설됨

- 새로 추가된 8가지 법제도는 해운회사의 안전 및 오염방지관리제도, 선박보안제도, 선원의 선박 권익보장제도, 선원의 해외비상사태에 대한 조기경보 및 비상대응제도, 해상교통자원계획제도, 해상무선통신보장제도, 특정 외국적 선박의 영해 출입보고제도, 해상선착장관리제도 등임
- 한편, 개정된 해상교통안전법은 선원관리제도, 화물 및 승객 운송 안전관리제도, 해양 권리 보호, 해상 수색 및 구조 제도, 교통사고 조사 및 처리 제도, 법적 책임 및 행정 강제제도 등 6가지 법률제도를 보완했음

■ 개정된 해상교통안전법은 전반적으로 해상교통 안전감독에 대한 요건을 강화했으며, 선박항행의 안전규칙을 세분화하였음

- 이번 해상교통안전법은 해사국제협약 등 국제제도와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중국에 등록된 3만 여척 선박의 원활한 항행을 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

(航運界, 2021. 5. 4.)

<https://mp.weixin.qq.com/s/d0iUGyWQKU5wSOgZBNItgA>

하이난자유무역항, 첫 번째 국제선박 선적 전환 완료

■ 2021년 5월 8일 하이난해사국은 하이난하이핑해운유한회사(海南海丰航运有限公司)의 ‘하이핑하이커우(海丰海口)’호에 대한 개명 및 선적 변경을 완료하고 선박 소유권, 선적 증명서 등 관련 인증서 및 서류를 발급했음

- 하이난하이핑해운유한회사는 하이난 하이커우에 등록된 회사로 홍콩법인의 단독투자회사이며, ‘하이핑하이커우’호는 컨테이너선(9,351GT, 5,657NT, 12,628DWT)으로 기존 선적은 홍콩임
- 이 선박은 「하이난자유무역항 건설 총체 계획」이 발표된 이후, 역외에서 하이난자유무역항에 입항 및 하이난자유무역항에 등록된 최초의 국제 선박임
- 또한 하이난 최초의 무관세 수입 선박이자, 국제운송에 종사하는 선박이기도 함

■ 하이난해사국은 이번 선박 등록 전과정에서 하이난하이핑해운유한회사의 시간과 운영비용 절감을 위해 비대면 심사를 비롯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함

- 하이난해사국은 2020년 11월 「하이난자유무역항 국제선박 등기절차 규정」을 시행하기 시작함
- 이 규정에 따라 하이난에 설립된 기업의 소유 국제선박, 금융리스 국제선박 또는 나용선(국제)은 ‘중국 양포항(中国洋浦港)’을 선적항으로 선박을 등록, 등기할 수 있게 되었으며, 하이커우, 산야(三亚) 등에 등록된 해운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 가능하도록 함

■ 2021년 5월 현재 하이난자유무역항에 등록된 ‘중국 양포항’籍 국제선박은 총 29척, 480여만 DWT로 집계됐음

- 하이난자유무역항은 국제선박 유치를 위해 제도를 혁신함과 동시에 또 무관세, 수출세 환급, 보세유 병커링 등 우대정책을 제공하고 있음

(中國水運网, 2021. 5. 12.)

<http://www.zgsyb.com/news.html?aid=590234>

TradeLens 중국 상륙, GSBN와의 경쟁 시작

- 5월 10일, UPI(연통디지털과학유한회사)는 Maersk와 IBM이 공동 개발한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TradeLens™의 중국 내 정식 상업화 운영 지원을 위한 협업을 발표했음
 - UPI와 TradeLens™간 이번 협력은 포괄적이고 실시간의 글로벌 컨테이너 화물 물류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
 - 협력의 일환으로 중국 본토에서 TradeLens™는 UPI의 호스팅 및 운영을 통하여 글로벌 수출입 업체와 공급망 참여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됨
- 이번 협력은 세계 2위 경제대국과 TradeLens™ 플랫폼 간 연결을 실현하고 TradeLens™의 글로벌 서비스 네트워크 범위를 보다 강화할 것으로 보고 있음
 - Maersk에 따르면 중국은 방대한 시장규모를 자랑하는 국가로, 현재 수출 컨테이너 3개 중 1개는 중국에서 수출되고 수입 컨테이너 6개 중 1개가 중국으로 수입되고 있다고 밝힘
- 한편, 블록체인 디지털 얼라이언스인 GSBN는 전 세계 규제기관의 심사 및 승인을 거쳐 2021년 3월 17일 홍콩에서 정식 운영되기 시작했음
 - GSBN은 COSCO Shipping Lines, COSCO SHIPPING Ports, Hapag-Lloyd, Hutchison Port Group, OOCL, Qingdao Port, PSA 및 SIPG 등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개방형 플랫폼임
- 따라서 TradeLens™와 GSBN간 페이퍼리스, 시각화, 디지털화를 둘러싼 경쟁이 전면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음
 - 다만 TradeLens™가 테크놀로지기업, 물류회사, 포워더, 선사 등과 함께 글로벌 네트워크 측면에서 GSBN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
 - TradeLens™는 화주, 선사, 항만 및 복합운송기업 등을 포함한 글로벌 공급망 생태계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, 기존의 수동 및 종이 문서를 블록 체인 기술로 강화 된 디지털 솔루션으로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
 - TradeLens™는 현재 10여개 선사, 600여 개 항만 및 터미널을 포함해 300여 개 기관이 가입해 있으며, 이미 3,500만 개 컨테이너 운송, 20억 건의 이벤트, 약 1,600만 건의 서류 추적 실적을 보유하고 있음

(中國水運网, 2021. 5. 10.)

<https://mp.weixin.qq.com/s/aQkhXxm6CTnbozXWm2GA0Q>

파나마적 선박에 대한 톤세 우대세율 5월 16일 만료

■ 2018년 중국 세관총서 제80호 공고에 따르면, 파나마 국적의 과세 대상 선박에 적용되는 선박 톤세 우대세율은 2021년 5월 16일자로 만료됨

- 2018년 제80호 공고는 '선박 톤세 우대세율 적용 국가(지역) 리스트'에 관한 공고로,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됨

■ 50,000NT급 선박을 기준으로 우대 세율과 비우대 세율을 적용시 톤세 차액은 약 30%에 이르는 것으로 산정됨

- 30일 기준으로 우대 톤세는 19만 위안, 비우대 톤세는 26.5만 위안으로 톤세 차액은 7.5만 위안임
- 90일 기준의 경우 우대 톤세는 38만 위안, 비우대 톤세는 63만 위안으로 차액은 15만 위안임
- 1년 기준의 경우에는 우대 톤세 114만 위안, 비우대 톤세는 159만 위안으로 톤세 차액이 45만 위안임

〈 선박 톤세 세율(위안/NT) 〉

구분	일반세율			우대세율		
	1년	90일	30일	1년	90일	30일
2,000이하	12.6	4.2	2.1	9.0	3.0	1.5
2,000~10,000	24.0	8.0	4.0	17.4	5.8	2.9
10,000~50,000	27.6	9.2	4.6	19.8	6.6	3.3
50,000이상	31.8	10.6	5.3	22.8	7.6	3.8

주: 예인선과 비기동 바지선은 톤세 세율의 50% 적용

■ 파나마 선적 선박에 대한 우대 세율 적용기간 연장 여부는 5월 7일 현재 확인이 되지 않는 상황임

- 과거 리비아 선적 선박에 대한 우대 세율 적용기간이 2019년 2월 13일 만료된후 다시 2024년 1월 7일까지 연장된 전례가 있음

(新航運在線, 2021. 5. 9.)

<https://mp.weixin.qq.com/s/ILvUR9dn9K1ofJhlBAqiug>

교통운수부, 「항만 및 선박 육상전력 관리방법」 개정

■ 2021년 5월 8일, 교통운수부는 「항만 및 선박 육상전력 관리방법(港口和船舶岸电管理办法)」 개정안과 함께 6월 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공지함

- 이번 개정은 「중화인민공화국 창장보호법(中华人民共和国长江保护法)」의 제72조, 제73조와 제84조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진행되었으며, 의견 수렴 후 상응하는 수정을 한 뒤 다시 발표할 예정임

■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수정된 조항은 다음과 같음

- (제1조) “선박의 정박기간 동안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고 선박이 안전하고 규범적으로 육상전력을 사용하게 하기 위해 「중화인민공화국 항구법」 및 「중화인민공화국 대기오염방지법」, 「중화인민공화국 창장보호법」 등 법규 규정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”로 수정함
- (제4조)를 “지방 각 급 교통운수(항만)주관 부서는 지방 인민정부에 자금 지원과 전기세 혜택 등 보조 정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, 부두의 육상전력시설 개조하며 선박의 육상전기 수신설비를 설치해 선박이 항만 접안시 육상전력을 사용하도록 장려한다”로 수정함
- (제6조 2항) “창장구역의 항만 경영자는 소재지 인민정부가 제정한 부두의 육상전력 설비 건설 및 개조 계획에 맞게 건설과 개조를 실시해야 한다”고 추가함
- (제10조 2항) “창장구역의 수로운송 경영자는 소재지 인민정부가 제정한 선박의 전기수신 설비 건설 및 개조 계획에 따라 건설과 개조를 실시해야 한다”고 추가함
- (제25조 2항) “창장구역에 정박하는 선박이 본 법 제11조 1항 규정을 위반할 시 해사관리기구가 위법행위를 중단시키고 경고하며 경중에 따라 벌금을 부과한다”고 추가함
 - 선박 발전기의 총 출력이 2천kW 이하일 경우 벌금 1만원 이상 2만원 이하, 사안이 심각할 경우 10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 부과
 - 2천kW이상 8천kW 이하일 경우, 2만원 이상 5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심할 경우 20만 위안 이상 3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
 - 8천kW 이상일 경우 5천위안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심할 경우 3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
 - 심각한 경우란 선박이 같은 항만에 연속 3번 이상 혹은 연속 12개월 안에 6번 혹은 그 이상 육상전력을 사용 규정을 위반하거나 전기 수신 설비 고장시 6개월 이상 방치했을 경우를 의미
 - 처음 규정을 위반하거나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경우 행정처분 없이 해사관리기구에서 교육을 진행

(港口圈, 2021. 5. 11.)

<https://www.163.com/dy/article/G9NS24E60519CUIJ.html>

리샤오펑 교통운수부 부장, 교통운송 분야 ‘14.5’ 계획에 ‘고품질’ 반영 강조

■ 교통운수부 부장(장관) 리샤오펑(李小鹏)은 5월 12일 회의를 열고 “도로 14.5 발전계획”, “수운 14.5 발전계획”, “주장항운 14.5 발전계획”, “해사시스템 14.5 발전계획”, “청두-충칭 도시경제권 종합교통운수체계 발전계획” 을 심의하였음

- 회의에서는 2021년은 ‘14.5’ 계획이 시작되는 해로 고품질 ‘14.5’ 프로젝트를 편성하는 것이 올해의 중점 사업이라고 강조함
- 중점 사업에는 1개의 마스터플랜과 철도, 도로, 수운, 민간항공, 우편, 교통허브 등 6개 영역의 프로젝트 계획이 포함됨
- 또한 14.5 기간동안 징진지 협동발전 및 지송안신구(暨雄安新区)건설, 창장경제벨트 발전 등 국가 중점 전략과 연계하여 서부육해신통로 등 중점 프로젝트 건설을 신속히 추진하고 도로와 철도, 수운, 민항 등 다양한 수송방식의 통합적인 연결을 통해 네트워크 효과와 운영효율을 제고 할 것을 강조함
- 도로망과 운송서비스망, 정보망, 에너지망 등의 융합발전을 도모하고, 농촌 및 국경지대의 교통 연결망을 늘리며 농촌 도로건설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함
- “수운 14.5 발전계획”을 기초로 중점항로 및 세계일류항만 건설을 도모하고 14.5 기간 수운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며, 안전하고 편리하며 효율이 높고, 친환경적이며 경제적인 현대 수운체계 건설을 목표로 제시함
- 또한 국내에서 두 번째로 큰 황금 수로인 주장(珠江)의 전략적 중요성을 언급하고, 주장 항운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여 항로 기능과 운송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국가 프로젝트 실행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함
- 해사시스템 또한 새로운 발전단계에 맞춰 새로운 발전이념을 적용할 것을 제시하였으며, 해사의 현대화 발전과 교통강국 건설을 가속화 하여 국가의 종합교통네트워크를 구축에 뒷받침할 것을 제시함
- 청두-충칭 도시간 경제권 건설을 지원하며, 친환경, 안전, 개혁개방 등을 중시하여 청두-충칭 두 지역간 종합교통운송체계 건설을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함

(交通运输部, 2021. 5. 12.)

https://www.mot.gov.cn/jiaotongyaowen/202105/t20210512_3590027.html

지분 매수, 매각을 통한 COSCO Shipping Ports의 동북아 허브항 구축 계획

■ COSCO Shipping Ports는 지난 2월 26일 텐진항주식유한회사와 텐진컨테이너터미널 지분(34.99%) 인수 계약을 체결한데 이어 4월 28일에는 텐진항측에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텐진유라시아국제터미널의 전체 지분(30%) 매각 협약을 체결함

- COSCO Shipping Ports의 인수와 매각이 완료되면 COSCO Shipping Ports(텐진)와 중하이터미널이 텐진 컨테이너터미널의 지분을 각각 45%와 6% 보유하게 되어 총 지분은 51%가 됨
- 이번 거래는 국내 터미널의 포트폴리오를 개선하고 자산 배분을 최적화하며 미래 성장동력을 추가하기 위한 COSCO Shipping Ports의 전략에 부합됨
- 또한 중국 북방 최대의 종합 항만인 텐진항(20년 787만TEU)과 글로벌 항만운행사인 COSCO Shipping Ports가 각각의 자원우위를 최대 활용하여 세계 일류항만 건설, 대외항로 개발, 지역 및 해외 투자 등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본격화하는 등 상호 이익이 될 것임

■ COSCO Shipping Ports는 COSCO Shipping의 컨테이너 선단을 기반으로 텐진항 컨테이너 터미널을 운영하면서 중화권 지역에서 선도적인 입지를 지속 강화하고 동북아 허브항 조성에 박차를 가할 것임

- COSCO Shipping Ports는 이번 거래에서 적극적으로 항로 구조를 보다 최적화하고, 텐진항 간선 항로를 늘리기로 약속함
- 또한 2020년부터 COSCO Shipping Group의 자체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량을 텐진항의 컨테이너 물동량 연평균 증가 수준에 맞추기로 하고, 5년간 연평균 증가율 15%이상을 목표로 텐진항 컨테이너 터미널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로 함

■ 현재 텐진항 컨테이너 터미널에서는 스마트터미널 구축이 추진되고 있으며, 2021년 1월 17일에는 전국 최초로 항만 자율주행 시범구역 운영을 시작함

- 현재까지 작업한 선박은 총 33척, 전체 작업효율은 20% 가까이 향상되었음

(中国远洋海运e刊, 2021. 4. 30)

https://www.sohu.com/a/463959378_120058948

칭다오항, 예인선 육상전력 시스템에 스마트칩 장착

■ 최근 칭다오항에서는 산둥항칭다오항바지회사(山东港口青岛港轮驳公司)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스마트선박 육상전력시스템을 공식 사용하기 시작함

- 시스템의 핵심인 스마트 육상전력 커넥터와 터치스크린 제어시스템은 중국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스마트선박 육상전력 분야에서도 최초로 개발된 것으로, 수동 플러그를 스마트방식의 플러그로 대체하여 작업자의 안전을 보장함
- 예인선은 작업 전후로 매번 육상전력 소켓에 연결해야 하는데 현재 업계에서는 사람이 수동으로 작업하기 때문에 기구나 설비의 노화 등 불가항력 요인에 의해 감전이나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실정임

■ 스마트 육상전력 커넥터와 터치스크린 제어시스템은 사물인터넷, 빅데이터, 클라우드컴퓨팅 등 신기술이 복합된 것임

- 여기에는 선박의 육상전력 시설을 스마트화 개조하고 스마트 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마이크로 컴퓨터가 제어하는 지능화된 육상전력 배전함과 모니터링 기능을 갖춘 모바일 앱이 포함됨
- 또한 예인선 전력 케이블에 스마트칩이 장착되어 모든 선박이 “전자 신분증”을 가지고 육상전력 사용시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선박을 식별하고 휴대폰 앱에 관련 데이터를 표시하도록 함
- 관리자는 휴대폰 앱으로 전력을 측정하고, 동영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으며, 원격으로 전력을 제어하는 등 조작이 간편하며 안전성을 크게 높였음

(中国水运报, 2021. 5. 12.)

<http://www.zgsyb.com/news.html?aid=590237>